

가루쌀 육성 정부 의지 표명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익산 하림산업 방문... 생산라인 돌아보고 현장의 소리 경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익산을 찾아 '가루쌀 사업' 확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미령 장관은 30일 익산 합열에 위치한 (주)하림산업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허진 익산부시장, 이종규 쌀가공식품협회 부회장, 이승택 미미농산 대표 등 가루쌀 산업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제품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신품종 쌀이다.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한 일반 쌀과 달리 가루쌀은 바로 빵이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가운뎃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활용이 용이해 밀 수입 의존과 쌀 공급과잉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을



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가루쌀 농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 생산물량 전망은 공공비축미로 수매되고, 가루쌀 재배 농가에는 ha당 200만 원 가량의 전략직불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재배된 가루쌀은 정부가 전략 매입해 실수요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익산의 경우 현재 영농법인 3개소에서 200ha 규모로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향후 560ha 까지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림은

가루쌀과 신선한 닭고기를 활용해 △얼큰닭육수 쌀라면 △맑은닭육수 쌀라면 2종을 생산하고 있다.

송 장관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가루쌀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농업인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이어 하림 가루쌀 생산 라인을 돌아보고 가루쌀 라인을 시식했다.

시는 이날 고령원성 조류독감(AD)과 관련한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시는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조류독감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해 64만여 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송 장관에게 살처분 비용과 관련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언급하며 가급 살처분 처리비 지원을 요구했다.

허진 부시장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중심으로 가루쌀 수요가 늘어날 것에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 올해도 익산시를 찾아 실력향상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 환영”

익산시,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지로 각광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 올해도 익산시를 찾아 실력향상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펜싱이카데미에서 지난 24일부터 2월 6일까지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동계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펜싱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훈련은 60명의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체육회, 호남대 선수들이 참여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익산을 방문한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을 환영한다”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미래 유망주 발굴에 앞장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 육상(투척) 국가대표 상비군 등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로 인기를 끌며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설맞이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선정

2월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수산물종합센터 등 4개 시장 참여 1인 2만원 한도

군산시는 설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고, 약 80억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보았으며,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

행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대규모특별전 6회(명절 등), 주말특별전(급 토 일)이 진행된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이 참여, 동시에 진행하며 그중 공설, 신영, 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환급기준은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내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소비 위축,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환급행사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부정수급, 안전사고, 관리방안 등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촌활력 도모... 군산시, 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어촌활력도모,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2월 29일까지 2025년도 정부 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촌·어촌분야 정부지원사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자참여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군산시(어업진흥과, 수산식품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심의를 통해 정부자금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발굴, 국가예산 확보로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개별 수산분야 지원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국고보조금정보·보조금사업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활기차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도약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지역특화 수산식품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설 맞이 착한가격 업소 다이로움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설을 맞아 장비구비 부담완화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2월 한달간 착한가격업소 27개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 맞이 착한가격업소 다이로움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요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가격, 품질도,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익산시는 2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벤트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익산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자동 참여된다. 기존 10%에 추가로 결제 금액의 10%가 지급돼 총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제1차 민간기록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익산시는 3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4회 민간기록물 공모전과 민간기록품 발간 기록화 영상 제작 등 2024년 주요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간기록물 공모전 주제 설정, 민간기록품 발간과 기록화 영상의 제작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6월 준공 예정인 시민역사박물관 내 전시실 콘텐츠와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은 “위원들의 노고로 짧은 시간 안에 민간기록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